

# 가족체계내 역동성요소에 근거한 가족유형에 따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The role of family types clustered based on the intra system dynamics elements in explaining housewife's managerial behavior.

고려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이연숙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Lee Yon Suk

## 〈 목 차 〉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family types clustered based on the intra system dynamics explained housewife's managerial behavior. The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distributed to a stratified sample of 544 housewives in Seoul who lived with husband and children.

The questionnaires included FACES II and III, Communication Scale, Managerial behavior Scale and Life Satisfaction Scale. Frequency, percentile, mean, correlation,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One-way ANOVA with Scheff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This study had resulted in three major findings.

The first was that families were clustered by four types, named structured-separated family, flexible-connected family, change oriented emashed, and rigid-disengaged family.

The second finding was that a difference in managerial behavior was found among four types of family. Housewives whose family were more connected each other and adapted more easily to changing situations showed better managerial behavior.

\* 본 연구는 1995년도 고려대학교 교내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The last one was that the managerial behavior of housewives was better explained by family types than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he better ways to lead effective managerial behavior were suggested.

## 1. 서론

### 1. 문제의 제기

가정관리는 가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 사용을 계획과 수행하는 목적적 활동이다. 이 가정관리를 통하여 가족의 목표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따라서 가정관리활동은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이 추구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게 된다. 특히 급속한 사회변화로 생활의 복잡성이 증가되고 문명의 발달에 따른 자원 수요의 증가로 자원이 희소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자원의 사용과 분배에 관련된 가정관리행동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은 어떤 활동을 말하며 이러한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을 설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가족자원관리분야의 많은 학자들이 가정관리행동을 다양하게 유형화하여 왔다. 그 중에서 Deacon과 Firebaugh(1975, 1981, 1988)의 체계모델은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을 유형화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이들의 체계모델요소는 가정관리현상을 보다 잘 설명하고 있으며 경험적인 검증에 매우 적합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연구들이 이 체계모델을 적용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하여 왔고 이들 체계모델 요소들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연구에서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써 가정관리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를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들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정관리자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수, 자녀, 소득과 같은 주어진

배경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을 증진시키거나 저해시키는 요소를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Deacon과 Firebaugh(1988)는 가족체계의 체계로서의 독특성을 나타내주는 요소로써 체계내 역동성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가족연구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환모델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요소에 가족자원관리행동인 기능성을 포함시켜서 이들 4요소를 체계내 역동성 요소라고 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제안은 가정관리행동과 순환모델의 3요소와의 관련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가계의 재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의 연구(Fitzsimmons의 2인, 1991)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들과의 관련성은 거의 실증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순환모델의 요소에 따라 가족을 유형화하고 이들 가족유형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밝히는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다른 요인으로서 체계내 역동성 개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가정관리행동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보다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가정관리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체계내 역동성 요소의 차원을 기준으로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여 가족의 유형화를 시도해보고, 이러한 가족유형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한 변수였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들이 가정관리행동의 설명력과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의하여 유형화된 가족유형들의 가정관리행동의 설명력을 비교해봄으로써 가정관리교육과 가정생활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체계내 역동성 요소인 응집성, 적응성 및 의사소통을 기본차원으로 하여 군집화할 때 가족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 2) 연구문제 1)에서 분류된 가족유형에 따라 가정관리행동은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 3)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와 연구문제 1)에서 분류된 가족유형의 가정관리행동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체계내 역동성(intrasystem dynamics)의 개념과 관련 연구

#### 1) 가족체계내 역동성의 개념과 요소

Deacon과 Firebaugh(1988)은 가족체계는 인적하위체계와 관리하위체계로 구성되고 이 두 하위체계는 의사소통과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여 체계적인 역동성을 발전시킨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내 역동성의 특성때문에 가족체계는 전체로서 그 자체의 발달 특성을 갖는 독특한 실체가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체계내 역동성의 요소로써 Olson등(1983)의 순환모델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의 3요소 이외에 가정관리행동인 기능성의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갖는 정서적 유대관계; 적응성은 가족체계가 상황적·발달적 요구에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역할규칙을 변화시키는 가족조직의 능력; 기능성은 요구를 예상하고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는 가족원의 능력; 의사소통은 타인의 마음에 의미를 생성하기 위하여 메시지를 사용하는 과정으로서 응집성, 적응성, 기능성을 촉진시키는 요소라고 정의하였다. 응집성은 응집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부터 밀착, 연결, 분리, 과잉분리의 네 차원으로

적응성은 변화정도가 높은 수준부터 혼돈, 융통적, 구조적, 경직적의 네 차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고 임상가족의 연구를 통해서 응집성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밀착이나 과잉분리 가족이나 적응성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혼돈이나 경직된 가족은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하였다.

#### 2) 관련연구

가족학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Olson등의 순환모델의 요소를 적용하여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가족원간 역동관계나 이들 개념이나 척도 자체의 타당성을 연구하고 있다.

첫째, 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의 가족응집성과 적응성과 부모-청소년자녀간의 가치합의, 심리적 거리나 정신적 건강과의 관계(박초아, 1988; 안양희, 1988; 최연실, 1993)를 분석하거나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관계(김진희, 1988; 민하영, 1991; 유순덕, 1987; 전귀연·최보가, 1993, 1995; 조은경·서병수, 1994)를 파악하고 있다.

둘째, 부부관계의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부부갈등(최귀연, 1994)이나 역할갈등(김수연·김득성, 1994)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거나, 복지감(김명자, 1992)이나 생활만족도(박경숙, 1993; 고정자·김갑숙, 1996) 권위유형과 성역할태도(안선영, 1994)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거나 의사소통의 효율성과(김수연, 1993; 김득성·김수연, 1993; 김수연·김득성, 1993)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셋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순환모델의 곡선성과 선형성의 문제(김득성·김수연, 1993; 김수연·김득성, 1993)를 다루거나 척도의 타당성(최연실, 1996)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모두 가족체계내 응집성 및 적응성 특성의 4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을 유형화하거나 두 특성 자체의 값을 각기 독립된 변수로 사용하여 가족원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연구에서 가족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어떤 특정한 통계적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값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체계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또

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응집성 및 적응성과 가족의 여러 순기능과의 관계에 대하여 Olson 등이 가정하고 있는 곡선적 관계를 지지하는 경우(Olson 등, 1987; 전귀연·최보가: 정인자, 1992)와 선형적 관계(김수연·김득성, 1993, 1994; 김득성·김수연, 1993; 최규련, 1994; 김진희, 1988; 민하영, 1991; 안양희, 1988; 김명자, 1992; 박경숙, 1993; 고정자·김갑숙, 1996)를 지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고 있어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가족자원관리 분야에서는 순환모델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의 요소들을 적용한 연구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들어 Fitzsimmons 등(1991)이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계의 재정관리행동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가계의 재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함께 이 3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세 요소는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되어 가계의 재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써 회귀식에 투입되었을 뿐 이들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체계를 유형화하는 시도는 없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3요소가 효율적 가계의 재정관리행동과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즉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고 의사소통이 효율적인 가족들이 재정관리를 보다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델에서 본 가정관리행동 유형 및 설명변수

Deacon과 Firebaugh(1975, 1981, 1988)는 가정관리행동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원을 사용하는 활동이라 정의하였다. 이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의 두 하위체계중 관리하위체계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으로 이 관리 하위체계는 요구와 자원으로 구성된 투입; 계획과 수행활동이 포함되는 변환과정; 요구에 대한 반응과 자원의 변화로 구성된 산출 및 피이드백의 요소로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Deacon과 Firebaugh의 관리하위체계모델을 적용하여 많은 학

자들이 관리행동을 유형화하고 측정하였다.

Maloch와 Deacon(1970)은 관리과정을 계획과정과 통제과정으로 구분하고, 계획과정에는 질적 표준과 양적 표준, 표준의 속성, 행동 순서화, 행동순서의 속성, 계획안의 사용빈도를 측정하였고, 통제과정은 조정활동과 촉진조기를 포함시켜서 유형화하고 시장과 비시장 상황에서의 오하이오 거주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이들 연구모델에서는 주부들의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써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를 설정하고 있는데, 여러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 중 6세 이하의 자녀수, 결혼지속연수, 주부의 건강 등이 가정관리행동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이인숙과 부정자(1991, 1992)는 Maloch와 Deacon이 분류하였던 요소를 적용하여 서울시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관리행동을 측정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가정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요구와 자원을 설정하였는데 요구요소 중 목표지향지수와 자원요소 중 주부의 가사노동 총 시간과 결혼만족도를 제외한 모든 요구와 자원요소가 주부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로 구성되어 있다. 막내자녀 연령, 주부의 취업상태, 가족수, 월평균소득, 자산, 주부의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들이 표준선정이나 행동순서화, 통제과정 등을 각각 설명하고 있었는데 이들 변수들의 관리행동의 설명력은 1%~6% 수준으로 나타났다.<sup>1)</sup>

Newton(1979)과 Garrison과 Winter(1986)는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델을 중심으로 관리행동을 목표설정, 행동의 순서화, 실행, 점검활동, 의사결정 및 의사소통활성화로 구성하고 이들을 설명하는 투입변수로써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를 설정하였다. 가정관리의 연령, 가족수, 자녀의 연령, 가족수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가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들 변수에 의한 가정관리행동의 설명력은 Newton의 연구에서는 6%, Garrison과 Winter 연구에서는 7%로 나타나고 있다.

1) 인구·사회학적 배경 변수들의 촉진조건에 대한 설명력은 37%로 나타났는데 Deacon과 Firebaugh는 이 촉진조건을 관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농촌가계의 재정관리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델을 적용한 Fitzsimmons, Hafstrom과 임정빈(1991)의 연구에서 재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이외에 최초로 체계내 역동성 요소인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변수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재정관리행동을 가족크기, 교육수준, 소득수준, 연령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와 체계내 역동성의 3요소가 설명하고 있었는데 R<sup>2</sup> 값은 13-15%로 선행연구에 비하여 설명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와 체계내 역동성요소를 분리해서 회귀식에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변수군의 설명력은 비교할 수가 없어서 설명력의 증가요인을 규명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상의 연구들은 가정관리행동을 유형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가정관리행동의 설명변수를 분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들을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들의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부분은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계내 역동성 요소를 설명변수로 채택한 연구에서도 이들 요소를 분리해서 회귀식에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내 역동성요소들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독립적 설명력은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나 기타 변수들과 가정관리행동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진 않았

으나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델의 요소를 적용하여 가정관리 행동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들은 주2)에 나타나있다.<sup>2)</sup>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방법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이다. 가족체계내 역동성요소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이상 자녀가 1명 이상 있으며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주부로 한정하였다. 본 조사실시에 앞서 해당 주부 100명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 면접 및 집단 검사를 통한 예비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분석하여 본 조사를 위한 척도를 작성하였다.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여 강북과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각각 1개교 중학교 각각 1개교 고등학교 각각 1개교와 2개 대학교의 학생들을 통하여 질문지를 배포한 후 그들의 어머니에게 응답하게 한 후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초·중·고등학교인 경우는 교사를 통하여 대학교의 경우는 담당교수 및 연구자가 질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였고 일부자료는 조사원이 개인 면담을 통하여 수집되었다. 총 544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510부가 회수되었으며(회수율 94%), 부실기재된 36부를 제외하고 총 474부가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 2) ① Gadagno(1981) : 급진관리능력을 측정하여 요인분석을 통하여 관리과정을 행동의 순서화, 실행, 점검, 촉진조건, 피이드백으로 유형화
- ② Olson & Beard(1984)의 질적인 접근법을 이용하여 관리행동을 유형화
  - a) 계획 : 목표설정, 표준설정, 자원할당, 자원과 표준의 조화 및 순서결정
  - b) 수행 : 실행, 점검, 조정
- ③ Heck(1984) : 계획행동을 계획활동지수와 자신을 계획자로 보는 지 여부, 수행을 부부간의 동등 의사결정지수와 부부의 총가계 생산시간으로 유형화
- ④ Heck, Winter & Stafford(1992)의 관리행동요소
  - a) 투입 ① 요구 : 목표설정
  - b) 변환과정 ① 계획 : 표준설정, 요구명료화, 자원할당, 행동순서화
    - ② 수행 : 실행, 점검, 조정
  - c) 산출 ① 요구에 대한 반응 ② 자원의 변화

## 2. 조사도구

조사도구는 자기기입식 질문지로 응집성 및 적응성, 의사소통, 관리행동,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응집성 및 적응성 척도

응집성 척도는 Olson등(1983)의 FACES-II 척도, 민하영(1991)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16문항을, 적응성 척도는 Olson등(1985)의 FACES-III 척도, 김수연(1993), 김명자(1992) 연구를 기초로 하여 10문항을 1차로 선정하여 관련 전공교수 5인으로부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예비조사후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척도와 상관관계가 마이너스거나 낮았던 적응성 척도의 4문항을 제외시켰다. 두 척도의 문항

은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 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종 선정된 응집성과 적응성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cronbach  $\alpha$  = .86과 .67로 나타났다.

### 2) 의사소통 척도

의사소통척도는 Olson등(1983)의 FACES-II, 김수연(1993), 이정우·이정숙(1992), 김순옥(1990), 김화사(1990)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24개 문항을 작성하여 관련 전공교수 5인으로부터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예비조사를 거쳐 전체문항과 상관관계가 낮은 1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23개 문항이 채택되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종선정된 의사소통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9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 수	구 분	빈 도(%)	변 수	구 분	빈 도(%)
주부연령	35세 이하	65(13.9)	가계총소득	150만원 이하	82(19.8)
	35-42	183(39.0)		150-250만원	146(35.3)
	43-49	175(37.3)		251-350만원	106(25.6)
	49세 이상	46(9.8)		350만원 이상	80(19.3)
주부학력	중졸 이하	76(16.2)	생활주기 (만자녀 중심)	초등교육기	103(21.7)
	고졸 및 대졸퇴	247(52.8)		중등교육기	189(39.9)
	대졸 이상	145(30.9)		대학교육기	112(23.6)
남편학력	중졸 이하	38(8.1)	주거형태	대학교육기 이후	70(14.8)
	고졸 및 대졸퇴	203(43.1)		단독주택	163(34.5)
	대졸 이상	230(48.8)		아파트	164(34.7)
가족형태	핵가족	399(84.2)	다세대	110(23.3)	
	확대가족	73(15.2)		빌라 및 기타	36(7.6)
가족수	3명	42(8.9)	주부의 직업강함	현재취업	187(40.1)
	4명	227(47.9)		과거취업	175(37.6)
	5명	131(27.6)		강함없음	68(14.6)
	6명 이상	74(15.6)		시간제취업	36(7.7)
자녀수	1명	30(6.3)	주부의 직업	전문·관리·사무직	54(12.2)
	2명	279(58.9)		판매·서비스직	145(32.7)
	3명	117(24.7)		무직	245(55.2)
	4명 이상	48(10.2)		전문·관리·사무직	254(53.6)
거주지역	강북	254(56.1)	남편의 직업	판매·서비스직	188(41.5)
	강남	199(43.9)		무직	11(2.3)

3) 가정관리행동척도

가정관리행동척도는 Heck 등(1992)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관리하위체계의 투입, 과정, 산출요소에 기초하여 총 13문항이 작성되었고 관련전공교수 5인으로부터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예비조사에 기초하여 문항분석결과 전체 문항과 상관관계 낮은 문항이 발견되지 않아 13문항이 전부 본 조사에서 사용되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관리행동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90$ 이다.

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척도는 Chung(1988), 최동숙(1991) 등의 연구를 기초로 총 18문항이 작성되어 관련 전공교수 5인으로부터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받았다. 예비 조사에 기초한 문항분석결과 모든 문항이 전체문항과의 상관관계가 높아 모두 채택되었다.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큰 것을 의미한다. 생활만족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92$ 이다.

3. 자료분석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가 적용되었고, 연구문제 분석을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요인분석, 군집분석, 일원분산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pc+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에 기초한 가족유형분석

가족체계내 역동성요소에 따라 가족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을 하였다. 먼저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척도 중 각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관계가 0.3이하인 문항을 제외시켰다(응집성 1개 문항 “우리식구들은 고민이나 비밀을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의논”; 적응성 1개 문항 “우리가족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짐”). 다시 구성된 응집성과 적응성 문항을 요인분석(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을 실시한 결과 응집성 척도는 3개의 요인이 적응성 척도는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표 2), <표 3> 참고).

서로 성격이 다른 유의미한 가족유형을 추출하기 위하여 전체응집성 척도, 요인분석에 기초한 응집성 척도의 3개 하위 척도 및 적응성척도, 의사소통 척도를 기본 차원으로 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전체 응집성 척도와, 적응성 척도, 의사소통 척도를 기본차원으로 가족을 유형화 하는 것은 척도간의 높은 상관관계와, 서로 다른 요인으로 구성된 전체 척도의 특성 때문에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는 군집이 형성되지 않았다. 여러 형태의 군집 중 가족유형 군집에 따른 빈도수가 고르게 분포되며 군집간의 특성이 유의미하게 구별되는 군집형태를 살펴본 결과 응집성 척도의 제 1요인과 적응성 척도에 의하여 구성된 군집형태가 가장 적절하였다. 요인1 응집성 척도가 전체 응집성 척도와 .92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요인1을 중심으로 한 응집

3) 전체 응집성 척도, 응집성 하위척도, 적응성 척도, 의사소통 척도의 상관관계

	전체응집성척도	요인1응집성척도	요인2응집성척도	요인3응집성척도	적응성척도
요인1응집성척도	.92***				
요인2응집성척도	.79***	.60***			
요인3응집성척도	.80***	.60***	.48***		
적응성척도	.74***	.70***	.55***	.60***	
의사소통척도	.66***	.57***	.57***	.56***	.60***

\*\*\* p<.001

〈표 2〉 응집성척도의 요인분석

문항번호	응 집 성	요인1	요인2	요인3	H2
8	식구들은 자기방식대로 삼	.69	.25	-.16	.56
12	자신의 일 결정 전에 가족과 상의	.69	.13	.24	.55
13	집안을 위해 해야할 일을 모름	.52	.15	.10	.31
7	일이 생기면 함께 처리	.52	.28	.31	.44
22	취미활동을 같이 함	.52	-.07	.40	.44
18	여가시간을 함께 함	.52	.19	.38	.45
1	어려울 때 서로 도움	.48	.28	.35	.43
16	다른 사람에게 현안함 느낌	.00	.76	.12	.59
19	가족들과 있으면 어색	.28	.67	.32	.64
15	식구가 가깝게 느낌	.43	.63	.25	.65
21	몇몇 가족원끼리 따로 행동	.35	.60	-.04	.48
10	식구의 친한 친구를 잘 압	.05	.10	.78	.61
5	그날 있었던 일을 서로에게 이야기	.32	.06	.63	.51
20	각자의 친구를 서로 인정	.06	.42	.58	.52
17	가족회의 결정사항 결정 노력	.42	.32	.45	.48
Eigen values		5.41	1.18	1.07	
변량(%)		36.1	7.9	7.1	51.1

〈표 3〉 적응성 척도의 요인 분석

문항번호	적 응 성	요인1	H2
2	문제가 생겼을 때 타협	.78	.60
4	의견차이가 있을 때 융통성 발휘 해결	.74	.54
11	무슨 일이든지 함께 결성	.72	.52
9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	.62	.38
14	집안 일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	.49	.24
Eigen values		2.29	
변량(%)		45.8	45.8

성 척도를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거나 의사소통 차원이 누락된 것은 앞으로의 연구에서 제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응집성 척도의 요인 1 요소와 적응성을 특성 변수로 한 군집분석을 통해 4가지 가족 유형을 추출했으며, 유형별 응집성과 적응성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가 〈표 4〉에 나타나 있다. Scheffe 검증 결과 가족유형 군집에 따라서 응집성과 적응성이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간 군집별 빈도수도 다른 특성을 차원으로 한 군집보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었

다. 가족유형인 각 군집의 명칭과 주요 특성은 〈표 5〉와 같다.

군집 1은 적응성과 응집성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집단이라 구조적·분리형 가족유형으로, 군집 2의 경우는 적응성과 응집성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집단이라 융통적·연결형 가족유형으로 명명하였다. 군집 3의 경우는 적응성, 응집성 점수가 다른 군집에 비하여 가장 높게 나타난 집단이므로 변화지향적·밀착형 가족유형으로 군집 4는 적응성, 응집성 점수가 4유형의 군집 중 가장 낮아서 경직적·과잉분리형



〈표 4〉 가족유형 군집별 응집성 및 적응성의 평균과 차이검증

	전체평균	군집 1 N=92		군집2 N=201		군집3 N=94		군집4 N=66		F값
		평균	sch.	평균	sch.	평균	sch.	평균	sch.	
응집성	25.08	20.74	A	26.44	B	31.06	C	18.48	D	629.41***
적응성	17.55	16.43	A	17.97	B	21.45	C	12.26	D	281.16***

\*\*\* p < .001

〈표 5〉 가족유형 명칭과 주요특성

군 집	가 족 유 형 명 칭	주 요 특 성
군집1	구조적 분리형 가족	적응성·응집성이 평균보다 낮은 집단
군집2	융통적 연결형 가족	적응성·응집성이 평균보다 높은 집단
군집3	변화지향적 밀착형 가족	적응성·응집성이 가장 높은 집단
군집4	경직적 과잉분리형 가족	적응성·응집성이 가장 낮은 집단

가족유형으로 명명하였다.

## 2. 가족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가정관리행동 전체 평균 점수는 45.48점 / 60점<sup>4)</sup>으로 5점 척도로 환산하면 3.79점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에서 3점을 중간점수로 본다면 이상과 같은 결과는 주부의 관리행동은 중간이상의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이 군집화된 가족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관리행동은 가족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6〉 참고).

가장 높은 가정관리행동점수를 보인 집단은 응집성 및 적응성 점수가 가장 높은 변화지향적·밀착형 가족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가정관리행동점수를 보인 집단은 응집성·적응성 점수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Scheffe 검증결과 응집성, 적응성 점수가 평균보다 낮은 집단은 두 점수가 가장 낮은 집

단과는 관리행동점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두 점수가 가장 높은 집단인 변화지향적·밀착형 가족이나 두 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집단인 융통적·연결형 가족유형과는 가정관리행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응집성, 적응성이 높은 가족일수록 자원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Fitzsimmons의 2인, 1991)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군집 3인 변화지향적·밀착형 가족의 경우 응집성 점수는 31.06점이고 적응성 점수는 21.45점인데 이를 5점 척도로 환산하면 각각 4.5점과 4.29점이고, 이러한 점수 유형은 Olson 등의 순환모델에서 응집성 및 적응성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족이다. Olson 등(1983)의 가정에 의하면 응집성 및 적응성이 중간수준인 가족보다 이러한 유형의 가족은 역기능적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응집성 및 적응성의 특성과 가족기능과의 곡선적 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Olson 등의 모델은 가

4) 가정관리척도문항은 13문항이었는데 본 조사후 최종분석에서 각 문항과 전체문항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관계가 낮은 "해야할 일이 있는데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룬다." 문항을 제외시켰다.

〈표 6〉 가족유형에 따른 가정관리행동과 생활만족도

가족유형	관 리 행 동			생 활 만 족 도		
	N	평균	sch.	N	평균	sch.
구조적 분리형 가족	89	42.13	A	88	54.22	A
융통적·연결형 가족	199	46.21	B	193	62.49	B
변화지향적·밀착형 가족	91	50.33	C	93	67.80	C
경직적·과잉분리형 가족	61	41.12	A	63	53.16	A
전 체	445	45.48		437	60.61	
F 값		31.2**			46.72***	

\*\*\*p&lt;.001

정관리행동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응집성 및 적응성의 특성은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과 선형관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이들 특성과 가정관리행동과의 선형성은 plot해 본 결과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응집성 및 적응성과 가정관리행동과의 선형성은 이들 특성과 농촌가계의 재정관리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한 Fitzsimmons외 2인(1991)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고 있었다.

가족의 순기능적인 측면인 생활만족도와 이들 특성간의 관계에서도 역시 이러한 선형관계는 지지되고 있다(〈표 6〉 참고). 응집성 및 적응성의 수준이 높은 가족의 순서로 높은 생활만족도를 보이고 있었다. 즉 변화지향적·밀착형 가족, 융통적·연결형 가족, 구조적·분리적 가족, 경직적·과잉분리적 가족의 순서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양상은 위의 가정관리행동과의 관계에서와 같은 결과이며 응집성과 적응성과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박경숙, 1991), 중년기 부부의 복지감(김명자, 1992),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고정자·김갑숙, 1996)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높은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은 가정관리행동을 효율적으로 이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lson등의 모델이 적응성이나 응집성이 매우 낮은 가족의 경우 병리적이며 역기능적이라 한 점은 지지되고 있으나 적응성이나 응집성이 매우 높

은 가족도 병리적이며 역기능적이라 한 점은 본 연구결과에서는 지지되고 있지 않고 있다.

### 3.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의 설명변수

가족의 체계내 역동성요소에 의한 가족유형변수와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들간의 설명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회귀분석(변수투입방법 Enter)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주부의 연령과 가정생활주기, 가족의 크기와 자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관리행동과 상관관계가 더 높은 주부의 연령과 가족의 크기를 포함시켰다. 가족의 형태, 주거형태, 주부와 남편의 직업유형, 거주지역 및 가족유형은 가변수 처리되었다(〈표 7〉의 주 참고).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를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표 7〉의 회귀식 1 참고)에서는 주거형태( $\beta = -.12$ )만이 관리행동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부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를 모두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는 가정관리행동의 분산을 3% 설명하고 있었으나 회귀식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의 낮은 설명력은 Decon과 Firebaugh의 관리하위체계요소를 중심으로 가정관리행동을 측정하였던 여러 선행연구(Newton, 1979 ; Garrison &

<표 7> 관리행동에 대한 인구·사회학적배경과 가족유형의 회귀분석

독립변수	회귀식(1)		회귀식(2)		회귀식(3)	
	b	$\beta$	b	$\beta$	b	$\beta$
<b>&lt;인구·사회학적배경&gt;</b>						
연령	-.12	-.09			-.04	-.03
주부의 교육수준	.03	4.08(E-03)			.24	.04
남편의 교육수준	-.21	-.03			-.49	-.08
+ 가족형태	-1.69	-.08			-1.78	-.08
가족크기	.17	.02			.33	.04
소득	1.48(E-03)	.03			1.75(E-03)	.03
+ 주거형태	-1.94	-.12*			-1.15	-.07
+ 주부의 직업 전문·관리직	.31	.01			-.99	-.04
판매·서비스직	-.17	-.01			-.77	-.05
+ 남편의 직업 판매·서비스직	-.92	-.06			-.65	-.04
무직	-.62	-.01			.88	.02
+ 거주지역	.52	.03			.07	4.64(E-03)
상수	52.33					
<b>+ &lt;가족유형&gt;</b>						
구조적·분리형			-3.96	-.21***	-4.72	-.24***
변화지향적·밀착형			4.23	.22***	4.29	.23***
경직적·과잉분리형			-4.97	-.23	-5.04	-.23***
상수			46.09		49.36	
F	.72		30.78***		5.11***	
R <sup>2</sup>	.03		.17		.21	

\*p<.05 \*\*\*p<.001

+: 가변수처리된 변수임

① 가족형태 : 핵가족(0) 확대가족(1) ② 주거형태 : 단독주택(0) 공동주택(1)

③ 거주지역 : 강북(0) 강남(1) ④ 주부의 직업 : 무직 및 주부기준

⑤ 남편의 직업 : 전문관리직 기준 ⑥ 가족유형 : 융통적·연결형 가족기준

Winter, 1986 ; 이연숙·두경자, 1992)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다.

다음에는 체계내 역동성요소에 의한 가족유형변수만을 독립변수로 하여 2단계 회귀분석(<표 7>의 회귀식 2 참고)을 실시하였다. 가족유형변수가 명목변수이었기 때문에 빈도수가 가장 많은 융통적·연결형 가족유형(N=201)을 기준변수로 하여 가변수처리하였다. 회귀분석결과 모든 가족유형은 가정관리행동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일원분산분석결과와 같이 구조적·분리형 가족이나 경직적·과잉분리형 가족은 융통적·연결형 가족보다 비효율

적인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족유형변수는 주부의 관리행동의 분산을 17%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들에 비해 훨씬 설명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에는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와 가족유형변수 모두를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표 7>의 회귀식 3 참고)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서는 가정관리행동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고 가족유형변수들은 모두 가정관리행동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들이 관리행동을 설명

하는데 유의미하다기 보다는 투입된 변수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나 가정관리행동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Newton, 1979 ; Garrison & Winter, 1986 ; 이연숙·두경자, 1992)결과를 볼 때 가정관리행동은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Deacon과 Firebaugh의 관리하위체계의 투입, 과정, 산출요소를 적용하여 가정관리행동을 개념화할 경우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은 가정관리자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 가족크기, 직업유형, 거주지역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원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주는 가족의 응집성과 역할관계 및 관계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나타내주는 가족의 적응성 같은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차이를 보이는 가족은 자원을 관리하는 가정관리행동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앞으로의 연구에서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를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로 포함시킨다면 가족에 따라 달라지는 가정관리행동의 양상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로써 가족체계내에 역동성 요소인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차원을 기준으로 군집화된 가족유형의 역할을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 474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가족체계내 역동성요소인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 척도의 3차원을 기준으로 군집화한 가족유형 보다는 역동성척도의 일부요소와 적응성 척도를 기준으로 군집화한 가족유형이 보다 적절하였다. 군집분석을 통하여 형성된 가족유형은 구조적·분리형, 응집적·연결형, 변화지향적·밀착형, 경직적·과잉분리형 가족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군집화된 가족유형에 따라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가장 효율적으로 가정관리행동을 하는 가족유형은 응집성 및 적응성이 가장 높은 변화지향적·밀착형 가족이었고 이어서 응집적·연결형 가족, 구조적·분리형 가족, 경직적·과잉분리형 가족의 순서로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가족은 응집성과 적응성이 가장 낮은 경직적·과잉분리형 가족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가정관리행동의 효율성과 응집성 및 적응성은 선형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가족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의하여 유형화된 가족유형변수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설명력은 17%로 나타나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에 의한 설명력 3%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론을 통하여 후속연구나 효율적인 가정관리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군집화된 가족유형이 타당한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는 다른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여러 차례의 군집분석절차 과정에서 의사소통차원이 포함될 경우 유의미한 군집이 형성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체계내 역동성 제 요소의 의사소통 차원이 축진요소로서의 특성때문인지, 본 연구에서 적용된 척도상의 결함인지를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본다. 군집분석을 통하지 않고 가족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들도 응집성 및 적응성 차원에만 근거하여 가족을 유형화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가족체계의 유형화에서 의사소통차원이 누락된 것은 선행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검증은 계속 요구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체계내 역동성 요소와 효율적 가정관리행동간의 선형적 관계도 후속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Deacon과 Firebaugh의 체계모데 이외에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다른 이론적 모델에 기초하여 가정관리행동을 추출하고 이러한 가정관리행동과 체계내 역동성요소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배경변수나 체계내 역동성 요소로 유형화된 가족유형

변수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설명력의 차이도 다른 이론적 모델에 기초한 가정관리행동에 적용해 볼 때만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정관리행동을 보다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조사도구의 개발이나 자료수집방법의 다양화(ex. 참여관찰, 심층면접과 같은 질적 자료수집방법)는 가정관리행동을 설명하는 변수를 보다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가정관리교육에 기여하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가정관리의 효율성이 가족의 응집성이나 적응성같은 가족원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때 주부의 효율적인 가정관리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를 밀접하게 유지하고, 상황의 변화에 역할관계와 권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원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보다 밀접하고 적응력이 있을 때 주부의 가정자원관리능력은 향상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가정자원관리방안을 상담하거나 교육할 때 가족원간의 역동적 관계인 인적요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금전, 물자 등과 같은 가족자원의 물리적 특성의 효율적인 관리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가족원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간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의 습득을 통하여 가정은 보다 잘 관리될 수 있고 이러한 가정관리행동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고정자·김갑숙. 가족의 응집성 및 스트레스 인지 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1996, 65-78.  
 2) 김명자.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력 및 복지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1992, 31-55.  
 3) 김득성·김수연. 가족의 응집 및 적응척도의 선형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19, 1993, 1-9.

4) 김수연.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3.  
 5) 김수연·김득성.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93, 30-39.  
 6) 김수연·김득성. 맞벌이 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994, 121-134.  
 7) 김순옥.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귀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0.  
 8) 김진희.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8.  
 9) 김화자.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의 의사소통 효율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 국민학교·중·고등, 대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0.  
 10) 민하영.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91.  
 11) 박경숙.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 중년기 여성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993, 121-135.  
 12) 박초아. 청년기 대학생 자녀와 부모간의 가치합의와 자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성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8.  
 13) 안선영. 가족의 응집력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태도와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2(2), 1994, 79-91.  
 14) 안양희. 고등학교 남학생 가족의 기능적 특성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 서킵프랙스모형을 이용하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88.  
 15) 유순덕.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87.  
 16) 이연숙·두경자. 가정관리체계의 요구와 자원요소가 관리과정에 미치는 영향 : 서울시 주부의 가사노동관리행동을 중심으로. 성심여자 대학(현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논문집, 11(1), 1991,

- 105-132.
- 17) 이연숙 · 두경자. 가정관리행동이 관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1992, 43-51.
- 18) 이정우 · 이정숙.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 :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3), 1992, 241-256.
- 19) 전귀연 · 최보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 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 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993, 116-157.
- 20) 전귀연 · 최보가. 가족체계 유형이 청소년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995, 99-113.
- 21) 조은경 · 서병숙. 부모 · 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 · 심리적 거리 · 의 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1), 1994, 104-116.
- 22) 최규련.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994, 140-152.
- 23) 최동숙. 가정자원관리체계 구성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1.
- 24) 최연실.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심리적 거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993, 159-175.
- 25) 최연실. 가족 적응력, 응집력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996, 131-143.
- 26) Chung, Y.S. Time management strategy, job satisfaction, research productivity,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facul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Iowa State University, 1988.
- 27) Deacon, R.E., & Firebaugh, F.M. Home management : Context and concepts. Boston : Hough-Mifflin, 1975.
- 28) Deacon, R.E., & Firebaugh, F.M.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1st ed.). Boston : Allyn & Bacon, 1981.
- 29) Deacon, R.E., & Firebaugh, F.M. Family resource management : Principles and applications(2nd ed.). Boston : Allyn & Bacon, 1988.
- 30) Fitzsimmons, V.S., Hafstrom, J.L., & 임정빈. 한국과 미국의 농촌 가계의 재정관리행동 : Deacon & Firebaugh 모델의 적용.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9(1), 1991, 81-89.
- 31) Gadagno, M.A.N. A system approach to family financial management : Implications for family research. Paper presented at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Milwaukee, Wisconsin, 1981.
- 32) Garrison, M.E. & Winter, M. The managerial behavior of families with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1986, 247-260.
- 33) Heck, R.K.I. A preliminary test of a family management research mode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7, 1983, 113-135.
- 34) Heck, R.K.I., Winter, M., & Stafford, K. Managing work and family in home-based employment.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 13(2), 1992, 187-212.
- 35) Maloch, M.F. & Deacon, R.E. Components of home management in relation to selected variables, Research Bulletin 1042. Ohio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Wooster, Ohio, 1970.
- 36) Newton, D.L. Managerial behavior, goal achievement satisfaction with managerial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thesis. Iowa State University, 1979.
- 37) Olson, D.H., McCubbin, H.I., Barnes, H., Howard, L., Larsen, A.S., Andrea, S., Muxen, M.J., & Wilson, M. A. Families :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1983.
- 38) Olson, G.L. & Beard, D.M. Assessing management related to daily activiti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NCR-116 Family Resource Management. Minneapolis, Minnesota, 1984.